

## 동북아 신뢰외교로 한반도 새 지평 열어야

백 승 주 / 국방부 차관

###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안보환경

지금 세계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 및 중견국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는 새 질서가 형성되는 국면에 처해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예산 및 병력조정을 감내하면서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아·태지역을 새로운 전략중심으로 설정하는 전략적 변환을 천명하고, 동맹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Alliance net)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 선포하는 등 공세적 대외전략을 구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G2라는 중국의 위상을 각인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신형대국 관계론'에 토대를 두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 측면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 간 상호협력이 깊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정치·군사적으로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일, 일·중 간 영토·역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선포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ADIZ)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

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시를 통해 역내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군사 강국인 러시아는 ‘대담한 국방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국외교를 힘으로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동북아 아시아 패러독스 상황은 영토갈등/역사문제가 민족주의와 결부될 때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한반도 측면에서는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체제는 핵 보유의지를 더욱 공공히 한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후 가해진 유엔의 제재로 가중된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WMD 개발과 양산을 지속하고 있고, 휴전선 및 NLL 인근 지상 및 해역에서 도발태세를 유지하며, 해상 및 수중 침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새로운 차원의 위협인 사이버전 또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박근혜 정부의 외교 · 안보 전략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정부는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안보측면에서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국정기조 하에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만들어 추진 중에 있다.

먼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안보 역량 강화가 우선되며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 추진전략을 수립·추진 중이다.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데 국방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미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과, 방위사업법 개정 등 국방경영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방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맞춤형 억제 전략’

을 세우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의 킬체인(Kill Chain) 구축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적극적인 방위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위협을 다가오고 있는 사이버전에 대비해 사이버 조직·인력 보강 및 다양한 공격 양상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한 전략권 전환 논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나아가 역내 다자안보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 등을 통해 군사외교 외연 확대 및 역내 지역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위한 노력들을 추진 중에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핵 무장 문제 나아가 범세계적으로 비확산 문제가 걸려 있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는 체제 유지와 변화의 문제가 달려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비핵화 협상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달성이다. 도발, 위기, 협상, 보상, 재도발 등으로 점철되는 기존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시간벌기를 방지하면서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 유지 하면서 압박과 설득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특히 주변 4국(미·일·중·러)은 물론 ASEAN, EU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원칙에 입각한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통해 기존의 악순환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북한과의 신뢰회복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준비해 가고 있다.

나아가 동북아 및 국제관계에서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유라시아 나아가 새로운 지구촌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최상의 한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통해 아태지역 평화 안보의 핵심 축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등에 있어서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3회의 정상회담과 4회 외교장관 회담 및 각종 전략 대화 등 정치/안보 분야의 다층적 전략 소통이 본격화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얼마 전 대통령 방한 시 발표한 한중 미래 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중국 측은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 하는 등 북핵 공조, 북한 도발 방지, 개성공단 재개, 평화통일 지지 등 한반도 관련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적극적 평화주의’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불안 조성과 주변국 신뢰확보 없는 방위역량 강화와 그 투명성 등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정치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성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생산적인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아태중시정책 간 시너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에 주요 파트너로 삼으면서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관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 불신과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 신뢰와 협력을 통한 다자안보협력의 인프라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2013년 11월 서울에서 24개국 국방차관 및 차관급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서울안보대화(SDD)도 그러한 비전을 실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향후 동북아 국가들과 기후환경 변화,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재난구호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연성이슈로 출발해 점진적으로 동북아 내 역내 국가 간 긴장도 완

화를 이끌어 내어 평화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 주요 지역협 의체와 협력 강화와 안보와 인권, 개발과 재난 구호, 기후변화와 환경,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외교 협력들을 통해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질서를 따르는 국가에서 질서를 만드는 국가로

동북아 국가들은 지금 아시아 패러독스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국과의 전략게임 중인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 한반도는 특수한 안보환경에 처해 있다. 북한 핵 불용원칙 하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하며 나아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통해 통일기반을 강화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아시아 패러독스와 특수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 간 평화체제 정착 나아가 세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거대 담론을 이끌어 가야할 때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신뢰외교를 통하여 우리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야 한다. 국제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질서는 형성하고, 불리한 질서는 타개하는 대외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자신감으로....